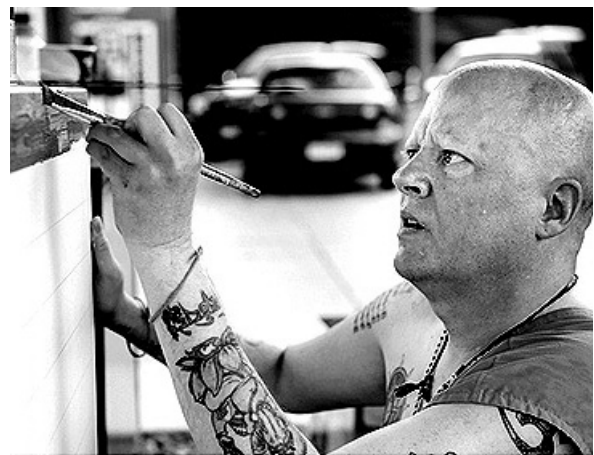


도장 새기고 벽화 그리고... 포교 효과 '톡톡'



'스님'만이 그릴 수 있는 독특한 그림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 로스 스님.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작품 속에 연기의 세계를 담으려고 한다. 옆 사진은 드래곤 불의 등장인물이 좌선하고 있는 모습.

나가타현 오지야에 있는 고쿠라쿠지사 코준 아사다 스님이 지우개 조각을 하고 있다. 옆 사진은 스님이 섬세하게 조각한 지우개 도장.

美·日서 재능기부로 포교하는 스님들 화제

스님들의 재기발달함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미국 로체스터에 거주하는 부 로스(Boo Roth) 스님과 일본 나가타현에 위치한 고쿠라쿠지사의 코준 아사다(Kojun Asada) 스님이 그 주인공. 두 스님은 모두 이전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포교현장에 나선다. 손에 칼을 들거나 붓을 든 채로 말이다.

부처 모습과 만트라로 몸에 문신을 새긴 부 로스 스님은 외양부터 범상치 않다. 법의만 아니었다면 영락없이 '머리 민 록가수'다. 때문에 별명도 메탈 스님(full metal monk). 이미 지역 내에서는 유명인사지만 외양 때문만이 아니다. 로체스터 시내 곳곳에 그려진 스님의 그림 때문이다. 전기번입기에 그려진 아이언

맨 혹은 가부좌를 튼 피콜로(만화 '드래곤볼'의 등장인물로 악의 상징)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도 남는다. 의자, 수돗가 등 공공시설물에 재미있는 그림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것이다.

덕분에 로체스터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물론 지금은 텍사스 주 오스틴까지 날아가 아트워크 페스티벌에 참여해 도시를 다채롭게 꾸며주고 있다.

스님의 작업이 의미있는 건 사람들이 그 과정을 함께 한다는 데 있다. 벽에 스케치를 해 놓고 색을 조금 입혀두면 나머지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몫이다. 저마다의 스타일로 붓을 들어 전체작품을 이뤄가는 것이다. 화염의 세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절에는 찾아오지도 않았을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할 기회도 갖지 못했을 것"이라는 로스 스님은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스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렇게 로스 스님은 사람들에게 창의적일 수 있는 '기회 제공의 보시'를 하는 반면 아사다 스님은 지우개 도장 보시를 통해 사람들의 거리를 좁힌다. 부처모습을 직접 지우개에 조각해 도장처럼 만든 걸 사

람한데 나눠주는 것이다.

불교가 낯선 이들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다가가고자 직접 조각 책을 보며 기술을 습득했다는 스님은 지우개 도장이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확신한다. 2011년 일본 지진 당시 미야기현을 찾았던 스님은 집과 재산을 잃은 이들에게 더 이상 위로의 말이 필요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미 너무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를 건넸던 것. 스님은 대신 섬세하게 조각한 부처 도장을 내밀었고 그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었다.

"우리가 나누는 건 작은 대화였지만 그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지우개가 마음과 감정을 열어준 셈이죠."

아사다 스님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작년부터 스님은 지우개 조각가 토모코 츠쿠미씨와 함께 '제행무상'이라는 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토모코씨에게 지우개 조각을 배우며 아사다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대부분은 20~30대 젊은 여성들. 그들은 "지우개를 조각하며 사경을 할 때처럼 마음이 잔잔해짐을 느낀다"고 했다. 아사다 스님은 "지우개 조각이 절과 사람을 잇는 가교역할을 했다"며 "신도를 늘리기 위해 고민하는 많은 스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재능을 백분 활용해 불법을 격의 없이 전하는 두 스님의 포교는 백천방편으로 세상에 나뉜 보살의 모습을 닮았다. 사회 회향을 위해 고정 관념의 틀을 한 꺼풀 벗어낸 모양새가 흠가분하기 그지없다.

배현진 수습기자

"사찰 방문하면 평온 찾아... 경기마다 최고의 집중력 발휘해"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 워블던 대회 중 사찰 찾아

영국 워블던 올잉글랜드클럽(All England Club)에서 진행되는 '2013 워블던 테니스 남자 개인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Novak Djokovic · 26 · 세르비아) 선수의 대회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인근 사찰을 찾았다고 슈퍼스포츠(Super Sport) 지가 7월 3일 보도했다.

"아름다운 공원과 자연이 어우러진 워블던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조코비치 선수는 "그러나 장기간의 대회에 집중해야 하는 선수는 내면의 안정을 찾으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찰에

는 내가 찾자 하는 평온이 있고, 그것은 매 경기마다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대회 기간 동안 자신의 여자 친구 제레나 리스티(Jelena Ristic)와 코칭 스태프 등이 함께 지낼 집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그가 방문하는 사찰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슈퍼스포츠 지는 조코비치 선수의 말을 인용, "워블던 테니스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 사찰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다"고 전하고, "그의 조국 세르비아의 주요 종교가

정통 기독교와 불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코비치 선수가 사찰을 찾은 게 낯선 모습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코비치 선수는 앤디 머레이(세계랭킹 2위 · 영국)와의 결승전 맞대결을 위해 도전하고 있다"고 전한 슈퍼스포츠 지는 "그는 2일 영국 워블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8강전에서 토마시 베르디흐(세계랭킹 6위 · 체코)를 3-0(7-6-6-4-6-3)으로 눌렀다"며 "이번 대회 1회전부터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있는 조코비치는 2010년 워블던부터 13회 연속 메이저대회 4강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는 영국 워블던 올잉글랜드클럽(All England Club)에서 진행되는 '2013 워블던 테니스 남자 개인전'의 바쁜일정 속에서도 사찰을 찾았다.

美 스리랑카 절, 벽안의 신행요람

스리랑카 이민자 불교사원, 10년 후 미국인들이 주류로

지난달 28일 개원 10주년을 맞은 미국 인디애나 웨인 황구 인근 스리랑카 불교사원이 화제다.

저널가제트(Journalgazette) 지는 7월 1일 "2004년 개원 당시 스리랑카 이민자들의 사원이었던 인디애나 불교사원(Indiana Buddhist Temple)이 10년이 지난 지금 벽안 불자들의 사원이 되었다"고 전하고, "벽안 불자들이 주류를 이룬 인디애나 불교사원은 명실 공히 미국 불교계의 일원이 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사원은 종교를 떠나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며, 누구에게나 불교의 명상과 수행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곳"이라는 타란가마 데반안다(Thalangama Devananda · 스리랑카 불교사원 원장) 스님은 "그러한 노력의 10년간 이어지면, 벽안의 불자들이 스리랑카 이민자 불자들의 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미국인 청년·장년층이 사원의 주류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인디애나 불교사원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한다"고 말했다.

나싱히(Sisira Ranasinghe) 법사는 "10년간 그 꿈을 실현하려는 크고 작은 노력이 쌓여서, 지금의 마이애미 불교사원이 되었다"며 "최근 호글랜드(Hoagland) 웨인 황구의 톰슨로(Thompson Road) 변 1000㎡ 부지로 사원을 이전, 과거보다 신형 여건이 좋아진 만큼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마이애미 불교사원 개원에 산파 역할을 도맡아 했다.

2009년부터 마이애미 불교사원을 다녔다는 밥 린스(Bob Rynes · 48) 씨는 "4년 전 처음 사원에서 명상을 했을 때 너무 심어 명성이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며 "이제 1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시에 사원에 모여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며 "평온함은 사원의 불자들의 신행력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10년간 사원을 지킨 불자들이야말로 마이애미 불교사원의 보배"라고 말한 반데 폰야시리(Bhante Punyasiri) 스님은 "지역 불교계는 항상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또 사원의 불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불교사원의 가치는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때 그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애미 불교사원의 10주년 기념식 증명법사로 초빙된 반데 폰야시리 스님은 LA에서 마이트리 비나라 명상센터(Maitree Vinara Buddhist Meditation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개원 1주년 기념식장을 찾은 게 계기가 되어 불자의 길을 걷고 있는 레이 가벳(Ray Gabet · 42) 씨는 "9년 전 개원 1주년 기념식장을 찾은 때는 단순히 호기심이었다면 지금은 신념이다"라며 "모든 인격을 존중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유익한 가치관"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10년 전 스리랑카 이민자를 위해 세워졌던 스리랑카 불교사원은 현재 미국 현지인과 외국인들이 찾는 사찰로 변모했다.

10년 전 스리랑카 이민자를 위해 세워졌던 스리랑카 불교사원은 현재 미국 현지인과 외국인들이 찾는 사찰로 변모했다.



10년 전 스리랑카 이민자를 위해 세워졌던 스리랑카 불교사원은 현재 미국 현지인과 외국인들이 찾는 사찰로 변모했다.

가장 쉽고 빠른 힐링과 깨달음!
20분 새에 잠보다 2~3배 깊은 휴식으로 피로 스트레스 신속해소, 원기회복하는 자기치유 비법

KBS(마음, 생로병사의 비밀), CNN, TIME지 등에 소개
www.tm-korea.org

초월명상(TM) 강연회
하버드 대학, 일본 노동성 등 세계 200여 연구소 효과 입증

고혈압·심장병·우울증·불면·대사증후군 해소
불안, 노이로제, 강박증 해소 / 지능, 이해력, 집중력 증가, 대인관계 개선 / 당노 비만 개선 / 두뇌개발, 창의력, 학습력 증진 / 흡연, 음주, 분노, 습관 개선 / 암사망률 감소 / 창조경영 / 마음의 평화, 삼매경 체험 / 자아완성(깨달음)

'저는 하루 두번 20분씩 TM이라는 보약을 복용합니다.'
- 오프라 윈프리, 미국 최고 여성부호, 방송인

때 : 매주 월요일 14시 30분, 목요일 19시 30분
곳 : 한국초월명상원 (서울 강동구 천호1동 4-2 세일빌딩 601호) (명일역 1번출구, 사거리에서 우회전 250m, 강동삼성한의원 건물 6층)

참가비 : 첫 강의 참가비 2만원 (관련서적 증정)
문의 : 서울 598-3152 / 010-7443-1296 (기업 및 지방 출장 강연 환영)

▶ 미국 6천여 의사 실시 및 최고 건강법으로 권유!
▶ 일본 150여 기업 등 세계 우수 기업들 도입!
▶ 세계 1천여 학교에서 시행, 초우수 학력, 학교폭력 근절!

손기원 박사와 신명나는

여름 청소년 지혜인 캠프

집중력

집중력 High5 프로그램

집중력 향상 (목표의식+명상+만점 자제)
+인성+자기주도학습+자신감+힐링캠프

▶ 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 21기 : 7.20~7.24 / 22기 : 7.29~8.2 (5일 과정) 단체복, 수료증 (특목고 / 입학사정관제 활용)

☎ 문의: 02-766-9455 www.onwisdom.com

지혜경영연구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340호

조상 제사 잘 모시는 방법

효과적으로 잘 지내는 방법
즐겁게 가족이 잘 지내는 방법
제사를 잘 모셔야 행복함

우울증, 알콜중독, 비만 약용 가위눌림
대학입시기도, 사업성공
치매, 암 증풍 예방 기도

조상영가 태아영가천도
조상송배 실천대회
조상님 산소 집초 잡목제거

여름방학 수련회 (3박 4일) 상담환영

춧불을 잘 밝혀야 기도가 잘 됨
010-3815-7162 (소원양초 주문환영)

천부경 수택담지특강

풍수지리 정태철
010-2797-1633

부산 - 제주, 부산 - 일본오사카
수륙천도제 하실 분 상담환영

대불정능염신주 인터넷 · 꿈바위 불교교육원 검색

지역사회 활동할 분 특별기도
가정집에서 포교활동 하실 분
노인 점심식사 자원봉사자 모집
가족이 함께 후원하실 분
쌀, 라면 보시자는 기도해 드립니다

꿈바위 불교교육원
010-6789-5008 대전 · 서울 · 부산 · 대구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 보험사 현장 실시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